



07-13 (통권 244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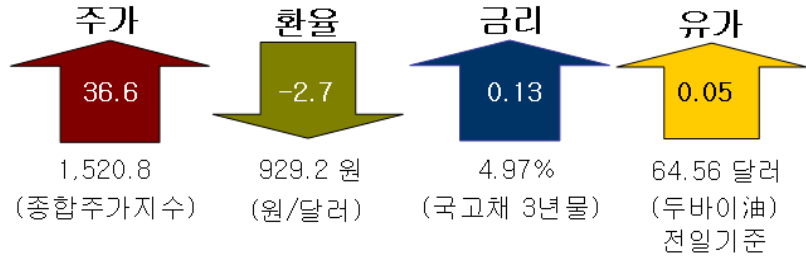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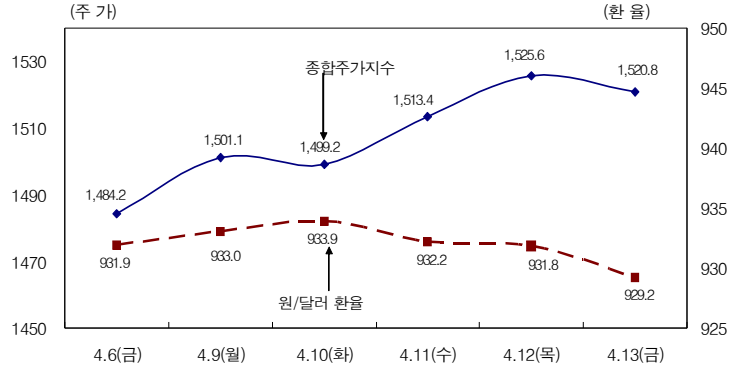
2007.4.13

韓國經濟週評



**BETTER THAN
THE BEST!**

月間 主要 經濟 指標 (4.6~4.13)



차 례

| | |
|--------------------------|----|
| 주요 경제 현안 | 1 |
| □ 서비스수지 개선이 가능하다 | 1 |
| 주간 경제 동향 | 17 |
| □ 실물 부문 : 실질적 고용시장 개선 미흡 | 17 |
| □ 금융 부문 : 주가 사상 최고치 재경신 | 18 |

□ 본 자료는 CEO들을 위해 작성한 주간별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 괄 : 한 상 완 경제연구본부장 (3669-4121, swan@hri.co.kr)
 □ 거시경제실 : 이 원 형 연구위원 (3669-4031, lwh@hri.co.kr)

Executive Summary

□ 서비스수지 개선이 가능하다

1. 서비스수지 적자의 현황 및 분석개요

(서비스수지 적자폭 확대 및 경상수지 악화) 서비스수지는 '03년 -74억달러에서 '06년 -188억달러까지 적자가 확대되었고, '07년에도 1월 -19.4, 2월 -25.5억달러 등 확대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서비스수지 적자 확대는 여행수지와 기타수지가 주도하고 있다. 여행수지는 '06년에 -129억달러까지 적자가 확대되었다. 기타수지는 -70억달러로 '05년 대비 적자 폭은 감소했으나, 적자 확대 추세는 아직도 유효한 상황이다.

'06년까지는 상품수지 흑자가 서비스수지 적자를 초과했다. 그러나, '07년에는 서비스수지 적자가 상품수지 흑자를 상쇄하고 있다(7.3억달러 적자). 이에 따라, 경상수지는 지난 1, 2월 동안 합계 0.6억달러 흑자에 그치고 있다.

국민소득 증대와 원화가치 절상에 따라 서비스수지 적자 폭 확대는 당분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비스수지 적자가 확대될 경우, 경상수지 흑자를 위협하고 장기적으로 대외부채 증가와 이로 인한 국가 경제 건전성 및 대외신인도 저하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분석 개요) 따라서 한국 서비스수지의 추세와 구조 분석을 통하여 적자 발생 요소와 발생 원인을 살펴보고, 적자 축소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일본의 사례를 비교 분석할 것이다. 일본은 산업구조, 상품수출주도형 발전과정, 서비스수지 적자 항목의 유사성 등 측면에서 가장 적당한 비교대상이다. 서비스수지의 추세분석은 1인당 GDP를 중심으로 하였으며, GDP는 서비스수지 비교분석에 적합한 구매력 평가기준(PPP)을 사용하였다. 비교 기간은 일본 '87~'95년, 한국 '96~'06년이다. 동 기간은 양국의 1인당 GDP가 13,000~22,000달러 수준이며, 서비스수지의 급격한 적자 확대 현상이 나타난 것도 동일하다.

2. 한일간 서비스수지 비교 분석

(1인당 GDP와 서비스수지) 한국은 1인당 GDP가 12,000달러 수준인 '95년까지는 서비스수지가 -30억달러 이내였으나, 22,000달러 수준인 '06년에는 -188억달러로 적자가 확대되었다. 일본도 1인당 GDP 13,000달러 수준인 '86년까지는 서비스수지가 -120억달러 내외였으나, '96년 23,000달러 대에서는 -620억달러로 최악의 적자를 기록하였다. 일본은 '97년부터 서비스수지가 호전되어 '06년에는 -200억달러까지 축소되었다.

(서비스수지 적자 증가속도) 한국의 서비스수지 적자 증가 속도는 '95년부터 '06년까지 연18.2%를 기록하여, 동기간 1인당 GDP 증가율 연5.3%를 크게 앞질렀다. 그러나, 일본도 '87년부터 '95년까지 각각 연18.0%, 연5.8%를 기록하여, 우리의 적자 증가속도가 일본에 비해 크게 빠르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서비스수지) 한국의 1인당 서비스수지는 적자 폭이 일본보다는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1인당 GDP 22,000달러 돌파시점인 '95년 1인당 서비스수지가 -457

달려였으나, 한국은 동일 소득구간인 '06년 1인당 서비스수지가 -391달러였다.

(對GDP 및 對경상수지 비중) 서비스수지의 對GDP 비중과 對경상수지 비중은 '06년 각각 -2.3%와 -308%에 달하여 경상수지 흑자기조를 위협하고 있다. 일본은 '95년 對GDP 비중 -1.1%, 對경상수지 비중도 -52%로 그리 높지 않았다.

3. 세부항목별 비교 분석

(항목별 추이) 한국의 서비스수지 적자는 여행수지와 기타수지의 급격한 적자에 기인하고 있다. 운수수지는 '04년 49억달러에서 '06년 25억달러로 흑자가 축소되고 있지만, 상품 수출입과 연동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적자나 흑자가 급격히 확대되지는 않는다. 반면, 여행수지는 '98년 34억달러에서 '06년 -129억달러로 급격히 악화되었고, 기타수지도 -35억달러에서 -70억달러로 적자 폭이 확대되고 있다.

일본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는데, 동일한 소득구간 동안 운수수지는 안정적인 수준의 적자가 지속된 반면, 여행수지와 기타수지는 적자가 확대되어 각각 '96년(-3.6조엔)과 '98년(-2.3조엔)에 최대적자를 기록하였다. 한편 '97년부터 시작된 일본의 서비스수지 적자축소에는('96년 -6.5조엔 → '06년 -2.1조엔) 기타수지가 크게 기여했다.('96년 -1.9조엔 → '06년 0.6조엔, 2.5조엔 개선 효과)

(對GDP 비중) 對GDP 비중 측면에서 볼 때, 여행수지 적자가 다른 항목에 비해 너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행수지의 對GDP 비중은 '02년 -0.8%에서 '06년 -1.6%로 적자가 급증하였다. 단일 항목으로서는 매우 큰 수준이다.

4. 주요 세부항목의 적자 원인

(일반여행수지) 우리나라의 일반여행수지는 '98년 42억달러에서 '06년 -85억달러로 수지가 반전되었다. 일반여행수지 적자증가의 가장 큰 원인은 국민소득 증가와 원화 가치 절상에 있다.(소득 1% 증가시 국내소비 0.3%, 해외소비 0.8% 증가, 한국은행) 그러나, 문제를 악화시키는 것은 우리나라의 낙후된 관광산업 경쟁력, 특히 가격경쟁력 열세가 원인인 것으로 판단된다.(World Travel and Tourism Council 인용)

(유학연수수지) 유학연수수지는 '00년 -9.3억달러에서 '06년에는 4.7배 증가한 -44.3억달러를 기록하였다. 이와 같은 유학연수수지 적자폭 확대는 영어교육 수요 급증과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에 기인하는 것이다.(소비지출 400만원 초과 가구의 순수 교육비 월 100만원, 1인당 유학비용은 생활비 포함 월 2천달러)

(특허권 등 사용료) 기타수지 중 특허권 등 사용료는 -25억달러 내외에서 안정적인 추세이다. 보유기술 등 무형자산이 부족한 상황 하에 고도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무형자산 수입이 늘어나는데 기인한다. 일본은 특허권 등 사용료 수지 적자가 확대되다가, 기술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변모하면서 대폭 흑자로 전환되었다.('97년 -2,790억엔 → '06년 5,470억엔) 한국도 아직 일본에 미치지 못하지만 보유 특허권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05년 출원건수 한국 73,512건 일본 122,944건; '00년대 출원건수증가율 한국 연 6.7%, 일본 연-3.5%,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정책적 노력 여하에 따라 향

후 특허권 등 사용료 적자축소나 흑자전환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사업서비스) 기타수지 중 사업서비스 항목은 '97년 6억달러 흑자였으나 '06년 68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여 기타수지 적자 70억달러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일본은 사업서비스 수지가 '98년 1조 4,390억엔 적자까지 확대되다가, 다시 '06년 1,040억엔 흑자로 반전되면서 기타수지의 흑자전환을 주도하였다. 사업서비스에는 무역관련업, 운송리스, 광고마케팅, 법률, 회계, 컨설팅 등 사업 지원서비스가 포함된다. 동 분야에 적자가 확대되는 것은 국내 사업서비스 관련 기업의 영세성과 경쟁제한적인 규제과다, 정부지원 부족이(고급인력 양성 및 금융지원 등)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한국은행)

5. 시사점 및 서비스수지 개선 과제

(시사점) 첫째, 서비스수지의 추세적 악화를 차단하고, 경상수지의 적자구조화를 방지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서비스수지는 일반여행 및 유학 급증, 전문적인 사업서비스 수요 확대 등으로 적자가 급격히 늘어, 서비스수지 적자가 상품수지 흑자를 상쇄하고 있으며, 자칫 경상수지 적자구조를 초래할 수도 있다.

둘째, 유무형 지적자산의 수입대체 및 수출 확대 노력이 필요하다. 일본은 강력한 제조업 기반으로부터 파생되는 지적자산 수출로 서비스수지 적자를 줄이고 있다. 한국도 제조업 기반으로부터 무형자산의 축적과 지식컨텐츠 분야의 성장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노력 여하에 따라 무형자산 수출국으로의 전환도 충분히 가능하다.

(개선 과제) 우리의 소득증대와 원화가치 상승을 감안하면, 서비스수지 적자는 불가피한 것일 수도 있다. 또한, 해외 여행·유학은 인적자산에 대한 무형투자의 의미도 있다. 그러나, 불필요한 여행경비 지출 축소나 기타수지 개선 노력은 필요하다.

첫째, 고급 관광자원을 확충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관광산업은 주변국과의 가격 경쟁은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산업간 융합(예: 문화, IT-관광), 컨벤션산업 활성화 등 관광자원 고급화 및 다양화로 내외국인의 관광 수요를 흡수해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유학 수요를 대체할 국내 교육서비스 다양화와 고급화가 필요하다. 교육시장 개방, 공공 차원의 영어교육 확대 등으로 국내에서도 해외유학 수요를 최대한 충족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유무형 지적자산 확충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민관공동연구 및 산학 연계 지원 확대, 지식기반산업에 대한 금융 및 세제 지원 강화 등을 통하여 보유 지적자산의 확충에 힘써야 한다.

넷째, 사업서비스업에 대한 체계적,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대형화 유도를 위한 한시적 세제 지원, 금융기관의 담보대출관행 개선을 통한 자금공급 확대 등 사업서비스업 경쟁력 강화에 주력해야 한다.

다섯째, 지식, 사업서비스 산업의 고급 전문인력 확충이 필요하다. 전문대학원 활성화, 산학협력 인재개발 지원, 해외 인재과건 확대, 외국 고급인력 수입 등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 서비스수지 개선이 가능하다 >

| | | | | |
|----------------------------------|---|--|---|---|
| 현황 | <p align="center">서비스수지 적자 가속화 경상수지 흑자기조 위협</p> | | | |
| | <p>- '06년 : 서비스수지 -188억달러, 경상수지 61억달러 - '07.1~2월 : 서비스수지 -44억달러, 경상수지 0.7억달러</p> | | | |
| 예상 문제점 | <p align="center">경상수지 적자 기조 전환시</p> <p align="center">1. 대외부채 증가 2. 국가경제 건전성 저하 3. 대외신인도 하락</p> | | | |
| | <p align="center">↓</p> | | | |
| 적 인 인 자 인 | 여행 | 유학 | 특허권 등 | 사업서비스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관광 산업 경쟁력 낙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학수요 급증 •사교육비 과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기술 축적 부족 및 기술수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산업 영세성 •경쟁력 취약 |
| | 개 선 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급 관광자원 확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교육 다양화, 고급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적자산 투자 확대 •전문인력 확충 |

I. 서비스수지 적자의 현황 및 분석개요

○ 서비스수지 적자폭 확대

- 최근 들어 우리나라의 서비스수지가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 지난 2003년 74.2억달러 적자에서 2006년 187.6억달러까지 확대되었음
 - 2007년 들어서도 서비스수지 적자 확대가 지속되어 지난 2월에는 25.51억 달러로 월간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였음
- 운수수지는 2004년 48.7억달러 흑자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흑자 폭이 감소되어 2006년에는 24.6억달러 흑자를 기록함
 - 2007년에도 월간 흑자 폭 감소가 지속되고 있으며, 지난 2월은 0.08억달러 에 불과하여 수입과 지출이 거의 균형 상태에 까지 도달하였음
- 여행수지는 적자가 확대되는 가운데 2006년에는 129.2억달러 적자 기록
 - 일반 여행은 84.8억달러, 유학 연수는 44.2억달러 적자를 기록함
- 기타수지는 2006년에는 70억달러 적자로 폭이 감소되었으나, 지난 2월에는 14.9억달러 적자를 기록하여 서비스수지 악화의 주 요인으로 등장

< 한국의 서비스수지 적자 추이 >

(단위: 억 달러)

| 구 분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
|-------|-------|-------|--------|--------|--------|--------|
| | | | | | 1월 | 2월 |
| 서비스수지 | -74.2 | -80.5 | -136.6 | -187.6 | -19.43 | -25.51 |
| 운 수 | 35.7 | 48.7 | 37.3 | 24.6 | 1.11 | 0.08 |
| 여 행 | -47.4 | -62.8 | -96.0 | -129.2 | -14.7 | -10.64 |
| 기 타 | -60.0 | -63.5 | -74.8 | -70.0 | -5.84 | -14.94 |

자료: 한국은행

○ 경상수지 악화

- 2007년 들어서는 서비스수지 적자가 상품수지 흑자를 상쇄하는 현상 발생
 - 그간 서비스수지 적자는 절대적인 규모 면에서 상품수지 흑자에 못미쳤음
 - 2007년 들면서는 서비스수지 적자 규모가 상품수지 흑자 규모를 초과

·이에 따라, 한국의 경상수지는 흑자가 1, 2월 합계 6천만달러에 그치는 등 흑자 폭이 급격히 축소되고 있음

- 향후 국민소득이 증대되고 원화 환율이 하락함에 따라 서비스수지 적자 폭은 점점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됨

·이 경우, 경상수지 흑자기조가 위협받게 될 수도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대외부채 증가와 이로인한 국가경제 건전성 및 대외신인도 저하를 초래할 위험이 있음

< 한국의 서비스수지와 상품수지 비교 >

(단위: 억 달러)

| 구 분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
|----------|-------|-------|--------|--------|--------|--------|
| | | | | | 1월 | 2월 |
| 경상수지 | 119.5 | 281.7 | 149.8 | 60.9 | -4.28 | 4.92 |
| 서비스수지(A) | -74.2 | -80.5 | -136.6 | -187.6 | -19.43 | -25.51 |
| 상품수지(B) | 219.5 | 375.7 | 326.8 | 292.1 | 12.92 | 24.77 |
| A + B | 145.3 | 295.2 | 190.2 | 104.5 | -6.51 | -0.74 |

자료: 한국은행

○ 분석 개요

- 한국 서비스수지의 추세와 구조 분석을 통하여 적자 발생 요소와 발생 원인을 살펴보고, 적자 축소를 위한 대안을 제시

·서비스수지의 추세분석에는 PPP 기준의 1인당 GDP를 사용하였음¹⁾

- 일본 사례와 비교분석으로 시사점을 찾고 보완대책을 찾을 수 있을 것임

·인본은 산업구조, 상품수출주도형 발전과정, 서비스수지 적자항목의 유사성 등으로 비교대상으로 적당함

·일본 이외에도 독일, 대만 등이 우리와 유사한 상품수출주도형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독일은 서비스수지 적자 발생기간 통독이 이루어져 경제구조의 불연속성 문제로 비교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대만은 산업구조의 상이성과 인구 규모 등의 차이로 적당한 비교대상으로 삼기에 곤란한 측면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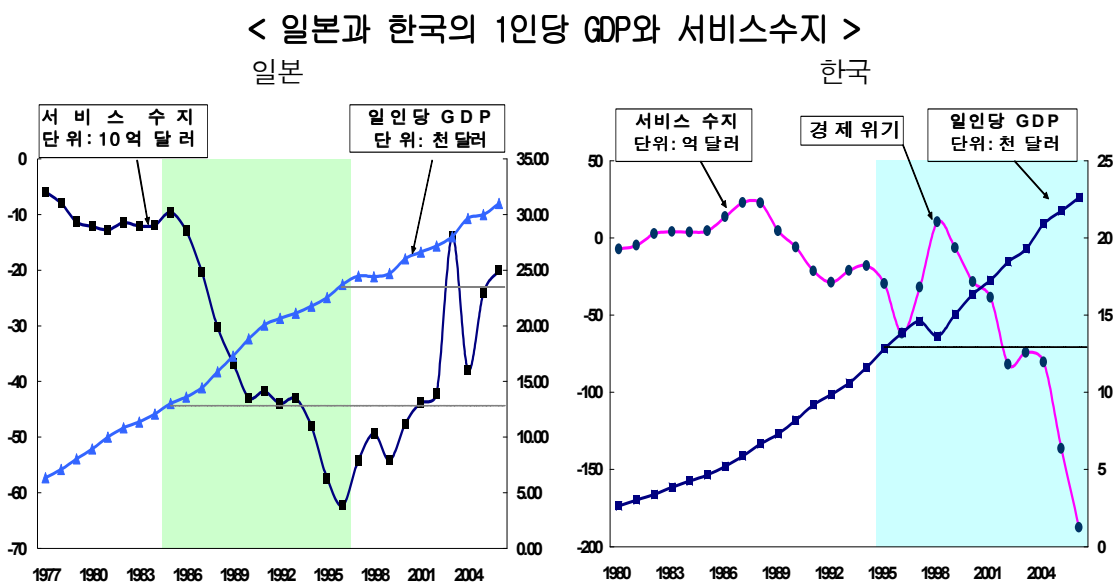
1) 여행 등 서비스수지 분석에는 구매력평가 기준이 가장 적합함

II. 한일간 서비스수지 비교 분석

1. 서비스수지 총괄 비교

○ 1인당 GDP와 서비스수지

- 한국과 일본은 1인당 GDP 13,000달러 수준에서 서비스수지 급격히 악화
 - 한국은 1인당 GDP가 13,000달러 수준에 도달하기 전인 1995년까지는 서비스수지가 -30억달러이내에서 적자가 유지되었으나, 이후 빠르게 증가함
 - 일본도 1인당 GDP 13,000달러 수준인 1986년까지는 서비스수지가 -120억 달러 내외의 적자를 유지하였으나, 이후 급속도로 증가함
- 일본은 1인당 GDP가 24,000달러를 넘어서면서 서비스수지 적자 개선
 - 1996년 1인당 GDP 23,000달러대에서 -620억달러 적자를 기록하였으나,
 - 1인당 GDP가 24,000달러를 초과하던 1997년부터 감소세로 반전하여
 - 1인당 GDP가 30,000달러를 초과한 2006년에는 -200억달러로 적자 폭 축소
- 다만, 한국은 1인당 GDP가 22,000달러대에 머물고 있어서 향후 추세에 대한 향방을 점치기는 아직 시기 상조



자료 : 한국은행, Ministry of Finance Japan, OECD.

○ 서비스수지 적자의 증가 속도

- 한국의 서비스수지 적자 증가 속도는 일본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남

- 일본은 1인당 GDP 14,000달러를 돌파한 1987년부터 서비스수지 적자가 급격히 확대되었으며, 1995년(1인당 GDP 22,000달러 대)까지 연18.0% 증가
- 한국은 1인당 GDP 13,000달러를 돌파한 1996년부터 서비스수지 적자가 급격히 확대되었으며, 2006년(1인당 GDP 22,000달러 대)까지 연18.2% 증가
- 한, 일 공히 서비스수지 적자 증가속도가 GDP 증가율을 크게 앞서고 있음

< 일본과 한국의 서비스수지 적자 증가율 비교 >

| | 일본 | | | 한국 | | |
|-------------|--------|--------|-------|--------|--------|-------|
| | 1986 | 1995 | 증가율 | 1995 | 2006 | 증가율 |
| 1인당 GDP(달러) | 13,610 | 22,551 | 5.78% | 12,818 | 22,613 | 5.30% |
| 서비스수지(억달러) | -130 | -573 | 18.0% | -30 | -188 | 18.2% |

자료 : 한국은행, OECD.

○ 1인당 GDP와 1인당 서비스수지 적자

- 한국의 1인당 서비스수지 적자는 일본보다 다소 적은 것으로 나타남

- 일본은 1인당 GDP 22,000달러를 돌파한 시점인 1995년에 1인당 서비스수지가 -457달러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
- 한국은 1인당 GDP 22,000달러를 돌파한 시점인 2006년에 1인당 서비스수지가 -391달러로 상대적으로 작은 상황임

< 일본과 한국의 1인당 GDP와 1인당 서비스수지 적자 비교 >

(단위: 달러, 억달러, 백만명, 달러)

| 연도 | 일본 | | | | 한국 | | | | |
|------|---------|-------|-----|-----------|------|---------|-------|----|-----------|
| | 1인당 GDP | 서비스수지 | 인구 | 1인당 서비스수지 | 연도 | 1인당 GDP | 서비스수지 | 인구 | 1인당 서비스수지 |
| 1985 | 13,010 | -96 | 121 | -79 | 1996 | 13,843 | -62 | 45 | -136 |
| 1986 | 13,610 | -130 | 121 | -107 | 1997 | 14,592 | -32 | 46 | -70 |
| 1987 | 14,446 | -204 | 122 | -167 | 1998 | 13,644 | 10 | 46 | 22 |
| 1988 | 15,884 | -302 | 123 | -247 | 1999 | 15,047 | -7 | 46 | -14 |
| 1989 | 17,287 | -367 | 123 | -298 | 2000 | 16,351 | -28 | 47 | -61 |
| 1990 | 18,826 | -429 | 124 | -347 | 2001 | 17,261 | -39 | 47 | -82 |
| 1991 | 20,075 | -418 | 124 | -337 | 2002 | 18,453 | -82 | 47 | -173 |
| 1992 | 20,670 | -440 | 124 | -353 | 2003 | 19,279 | -74 | 47 | -156 |
| 1993 | 21,138 | -431 | 125 | -345 | 2004 | 20,907 | -80 | 48 | -169 |
| 1994 | 21,770 | -481 | 125 | -384 | 2005 | 21,743 | -137 | 48 | -286 |
| 1995 | 22,551 | -574 | 125 | -457 | 2006 | 22,613 | -188 | 48 | -391 |

자료 : 한국은행, OECD

○ 서비스수지의 對 GDP 및 對 경상수지 비중

- 한국 서비스수지의 對 GDP 비중은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일본은 서비스수지의 대 GDP 비중이 -1.1%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는 반면,
 - 한국은 최근 5개년 평균 -1.6%이며, 2006년 현재 -2.3%를 기록하고 있음

< 일본과 한국의 서비스수지의 대 GDP 비중 비교 >

(단위: 달러, 10억엔, 억달러)

| 일본 | | | | | 한국 | | | | |
|------|---------|-----------|-----------|-------|------|---------|-----------|-----------|-------|
| 연도 | 1인당 GDP | GDP 명목(A) | 서비스 수지(B) | (B/A) | 연도 | 1인당 GDP | GDP 명목(A) | 서비스 수지(B) | (B/A) |
| 1991 | 20,075 | 476,551 | -5,630 | -1.2% | 2002 | 18,453 | 5,469 | -82 | -1.5% |
| 1992 | 20,670 | 481,087 | -5,570 | -1.2% | 2003 | 19,279 | 6,080 | -74 | -1.2% |
| 1993 | 21,138 | 482,049 | -4,780 | -1.0% | 2004 | 20,907 | 6,809 | -80 | -1.2% |
| 1994 | 21,770 | 476,294 | -4,900 | -1.0% | 2005 | 21,743 | 7,875 | -137 | -1.7% |
| 1995 | 22,551 | 483,008 | -5,390 | -1.1% | 2006 | 22,613 | 8,151 | -188 | -2.3% |
| 평균 | 21,241 | 479,798 | 525 | -1.1% | 평균 | 20,599 | 6,877 | -112 | -1.6% |

자료 : 한국은행, Ministry of Finance Japan, OECD.

- 한국 서비스수지의 對 경상수지 비중(경상수지 흑자잠식률²⁾)도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
 - 특히, 2006년에는 서비스 수지의 경상 수지 잠식률이 308%에 달하고 있음

< 일본과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 잠식률 비교 >

(단위: 10억엔, 억달러)

| 일본 | | | | 한국 | | | |
|------|----------|-----------|-------|------|----------|-----------|-------|
| 연도 | 경상수지 (A) | 서비스수지 (B) | (B/A) | 연도 | 경상수지 (A) | 서비스수지 (B) | (B/A) |
| 1991 | 9,116 | -5,630 | 61% | 2002 | 54 | -82 | 152% |
| 1992 | 14,235 | -5,570 | 39% | 2003 | 120 | -74 | 62% |
| 1993 | 14,669 | -4,780 | 32% | 2004 | 282 | -80 | 29% |
| 1994 | 13,343 | -4,900 | 36% | 2005 | 150 | -137 | 91% |
| 1995 | 10,386 | -5,390 | 52% | 2006 | 61 | -188 | 308% |

자료 : 한국은행, Ministry of Finance Japan, OE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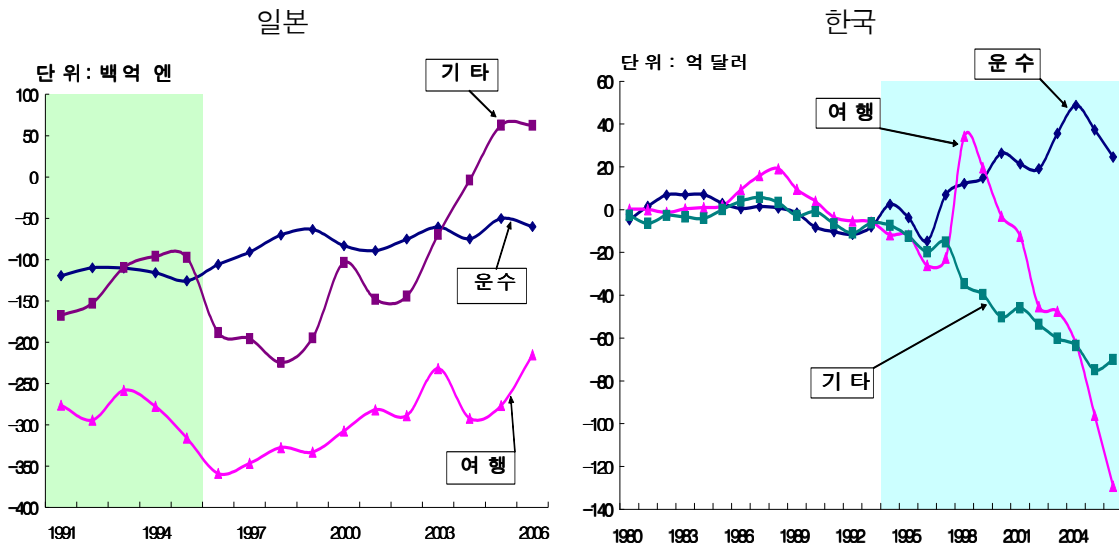
2) 경상수지 흑자 잠식률 = -(서비스수지/경상수지)의 의미는 경상수지가 흑자인 경우 즉 무역흑자가 서비스 적자보다 큰 경우 상품수지 흑자에 의하여 발생 가능하였던 경상수지 흑자가 서비스수지 적자에 의하여 감소된 경우로 경상수지 흑자가 잠식된 것을 의미함

2. 세부 항목별 비교

○ 항목별 장기 추이

- 한국의 서비스수지 적자는 여행수지의 급격한 적자에 기인함
 - 운수수지는 2004년 49억달러 흑자를 기록한 이후 점차 축소되는 양상임
 - 여행수지는 적자가 급격히 늘어나 2006년에 -126억달러를 기록하였음
 - 기타수지는 적자가 대폭은 아니지만 꾸준히 확대되고 있음
- 일본의 경우 서비스수지 적자가 확대된 배경에는 여행수지와 기타수지가 있었음
 - 운수수지는 적자는 지속되었지만 그 수준은 안정적인 양상이었음
 - 여행수지는 1996년까지 지속적으로 적자 폭이 확대 되었음
 - 기타수지는 1995년까지 적자 폭이 축소되다가 이후 1998년까지 적자 확대
- 일본은 1997년부터 서비스수지 적자가 축소되기 시작하여 1996년 -623억달러에서 2006년 -200억달러(추정)를 기록하였음
 - 이는 운수수지와 여행수지 적자가 점진적으로 개선되었을뿐더러
 - 기타수지가 대폭 개선되어 흑자로 반전하였기 때문임(2006년 6,200억엔)

< 일본과 한국의 항목별 서비스수지의 장기 추세 >



자료 : 한국은행, Ministry of Finance Japan.

○ 항목별 기여도

- 세부 항목별 서비스수지 기여도를 보면, 한국과 일본의 차이가 드러남
 - .일본은 여행수지가 전체 서비스수지 적자의 절반, 그리고 운수와 기타수지가 1/4 정도를 차지하는 반면,
 - .한국은 운수수지는 흑자인데 반하여, 여행수지와 기타수지는 서비스수지의 각각 2/3 정도를 차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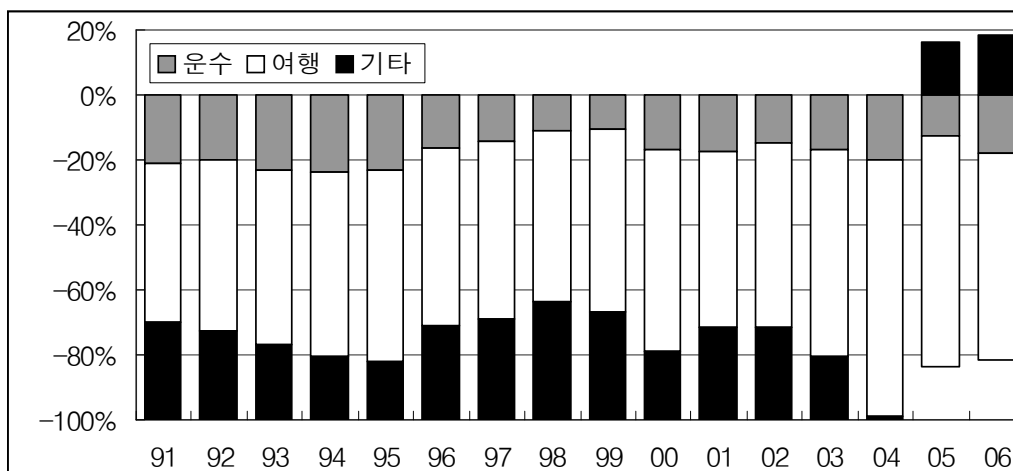
< 일본과 한국의 세부 항목별 서비스수지 기여도 >

| 연도 | 일본 | | | 연도 | 한국 | | |
|------|------|------|------|------|-----|------|------|
| | 운수 | 여행 | 기타 | | 운수 | 여행 | 기타 |
| 1991 | -21% | -49% | -30% | 2002 | 23% | -55% | -65% |
| 1992 | -20% | -53% | -27% | 2003 | 48% | -64% | -81% |
| 1993 | -23% | -54% | -23% | 2004 | 61% | -78% | -79% |
| 1994 | -24% | -57% | -20% | 2005 | 27% | -70% | -55% |
| 1995 | -23% | -59% | -18% | 2006 | 13% | -69% | -37% |
| 평균 | -22% | -54% | -24% | 평균 | 34% | -67% | -63% |

자료 : 한국은행, Ministry of Finance Japan, OECD.

- 특히, 일본의 서비스수지 적자 감소는 상당 부분 기타수지의 개선에 의존함
 - .일본의 기타수지는 1998년 최악의 적자를 기록한 이후 점진적으로 적자 폭이 감소하여 2005년부터는 흑자로 반전되었음

< 일본의 세부 항목별 서비스수지 기여도 장기 추이 >



자료 : Ministry of Finance Japan

- 對GDP 비중 측면에서 볼 때, 한국의 여행수지 적자는 우려할만한 수준임
 - 여타 수지의 경우 한국과 일본이 대부분 GDP의 -1% 이내에서 유지되고 있는데 반하여
 - 한국 여행수지의 對 GDP 비중은 2002년 -0.8%에서 2006년 -1.6%까지 규모가 증가되었으며, 이는 단일 항목으로는 매우 큰 수준임

< 일본과 한국의 서비스수지 세부 항목별 대 GDP 비중 >

(단위: 달러)

| 일본 | 일본 | | | 한국 | 한국 | | |
|------|-------|-------|-------|------|------|-------|-------|
| | 운수 | 여행 | 기타 | | 운수 | 여행 | 기타 |
| 1991 | -0.3% | -0.6% | -0.4% | 2002 | 0.4% | -0.8% | -1.0% |
| 1992 | -0.2% | -0.6% | -0.3% | 2003 | 0.6% | -0.8% | -1.0% |
| 1993 | -0.2% | -0.5% | -0.2% | 2004 | 0.7% | -0.9% | -0.9% |
| 1994 | -0.2% | -0.6% | -0.2% | 2005 | 0.5% | -1.2% | -1.0% |
| 1995 | -0.3% | -0.7% | -0.2% | 2006 | 0.3% | -1.6% | -0.9% |

자료: 한국은행, Ministry of Finance Japan, OECD
 참고: 1인당 GDP는 OECD기준, 2006년은 추정치임

3. 항목별 적자 급증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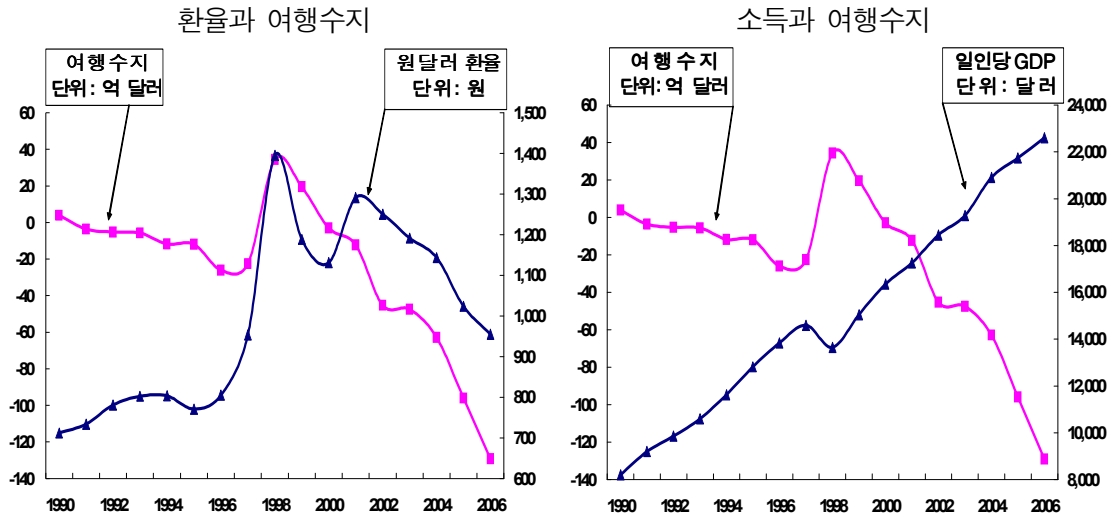
1) 여행수지 적자의 원인

○ 낙후된 관광 경쟁력

- 여행수지 적자가 대폭적으로 증가한 것은 1인당 국민소득 증가와 원화 가치 상승의 복합적인 작용에 의한 것으로 판단됨
 - 한국은행에 의하면 소득 1% 증가에 대한 국내소비 증가는 0.3%, 해외소비 는 0.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³⁾
 - 원화의 대미달러 환율이 2001년 1,290.99원에서 2006년 955.08원으로 하락 하면서 여행수지는 -12.3억 달러에서 -129.2억 달러로 규모가 대폭 증가함

3) 장광수, 김민우, 우리나라의 국제수지 발전단계 변화와 향후 과제, 한국은행, 2007. 3. 15.

< 환율, 소득수준과 여행수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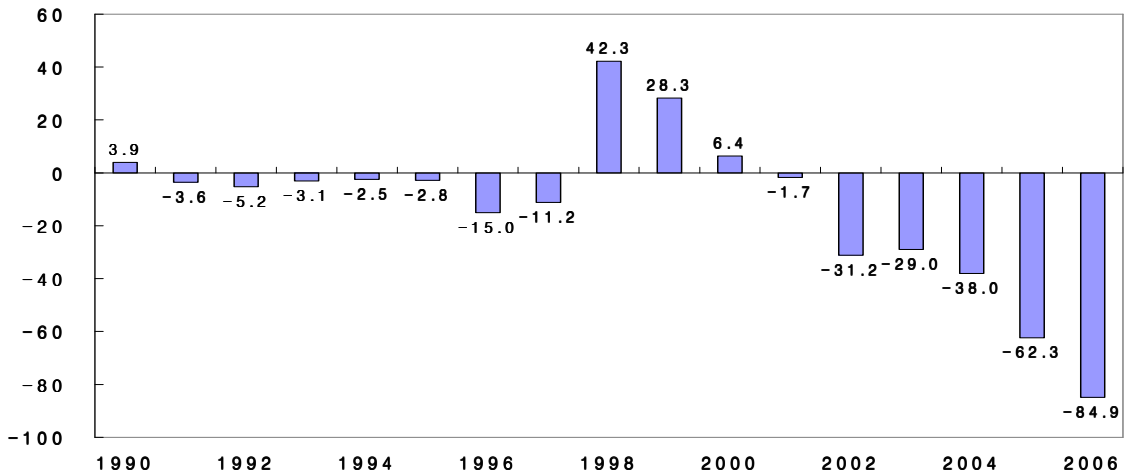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 일반 여행수지는 1990년대 중반 -10억달러 내외, 2003년 -29억달러에서 매년 규모가 증가하여 2006년에는 -84.9억달러를 기록

< 일반 여행수지 >

(단위 : 억 달러)



자료 : 통계청

- 여행수지 적자에는 관광산업의 가격 경쟁력 열위도 원인이 되고 있음
 - WTTC(World Travel and Tourism Council)에 의하면 한국의 인적자원, 기술, 환경 경쟁력은 양호하나,
 - 가격경쟁력이 주변국 중 일본 다음으로 낙후되어 있음

< 한국과 주변국의 관광 경쟁력 비교4) >

| 항목 | 한국 | 중국 | 일본 | 인도 | 말레이시아 | 필리핀 | 태국 | 베트남 |
|-------|-------|-------|-------|-------|-------|-------|-------|-------|
| 가 격 | 62.86 | 90.36 | 31.61 | 98.70 | 87.50 | 83.07 | 91.89 | 92.72 |
| 관광인원 | 3.73 | 3.42 | 0.65 | 0.98 | 22.36 | 2.03 | 13.16 | - |
| 인 프 라 | 46.38 | 26.66 | 63.04 | 35.01 | - | 43.40 | 44.23 | 31.86 |
| 환 경 | 71.10 | 63.91 | 66.95 | 66.29 | 79.17 | 78.02 | 65.48 | 66.70 |
| 기 술 | 82.98 | 25.41 | 68.96 | 4.98 | 62.85 | 38.72 | 28.95 | 4.32 |
| 인적자원 | 97.00 | 83.00 | 94.00 | 59.00 | 83.00 | 89.00 | 86.00 | 82.00 |
| 개 방 성 | 7.91 | 44.50 | 7.17 | 37.01 | 62.06 | 26.21 | 61.16 | 36.31 |
| 사 회 성 | 64.05 | 44.08 | 93.00 | 26.17 | 39.87 | 30.74 | 34.13 | 24.26 |

자료 : WTTC (World Travel and Tourism Council), Competitiveness Monitor, 2004.

주 : 100에 가까울수록 높은 경쟁력을 나타냄

- 관광 가격 경쟁력의 세부 항목을 보면, 호텔 객실 가격은 주변국 중 필리핀 다음으로, 구매력 기준 물가와 관광 물가는 일본 다음으로 높음
 - 호텔 물가는 필리핀 17.56, 한국 15.02, 일본 14.75의 순임
 - 구매력 기준 물가는 37.84로 일본 71.48보다는 월등히 낮지만, 다른 주변국에 비하면 약 2~3배 수준임
 - 관광 물가는 일본 68.39, 한국 37.14, 필리핀 16.93, 말레이시아 12.5, 중국 9.64, 인도 1.3 등임

< 주변국의 여행물가와 관광 경쟁력 >

| 물가 구분 | 한국 | 중국 | 일본 | 인도 | 말레이시아 | 필리핀 | 태국 | 베트남 |
|-----------|-------|-------|-------|-------|-------|-------|-------|-------|
| 호텔 | 15.02 | 10.37 | 14.57 | 3.68 | - | 17.56 | 4.91 | 9.36 |
| 구매력 | 37.84 | 13.01 | 71.78 | 10.75 | 26.44 | 13.63 | 16.83 | 11.49 |
| 호텔/구매력 평균 | 26.43 | 11.69 | 43.17 | 7.22 | 13.22 | 15.59 | 10.87 | 10.42 |
| 관광 | 37.14 | 9.64 | 68.39 | 1.30 | 12.50 | 16.93 | 8.11 | 7.28 |
| 관광가격 경쟁력 | 62.86 | 90.36 | 31.61 | 98.70 | 87.50 | 83.07 | 91.89 | 92.72 |

자료 : WTTC (World Travel and Tourism Council), Competitiveness Monitor,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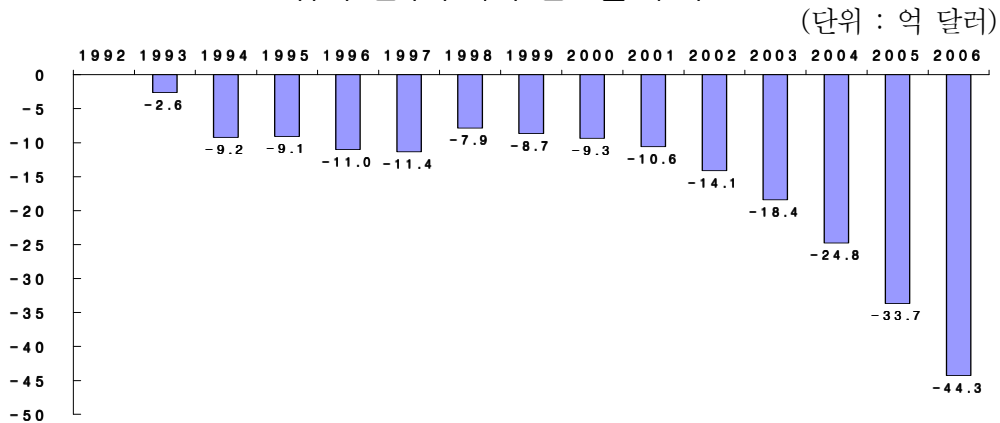
주 : 호텔, 구매력, 관광물가는 물가지수로 지수의 값이 클수록 높은 물가를 의미하며, 관광가격 경쟁력지수는 100에 가까울수록 가격 경쟁력이 높은 것을 의미함

4) 항목별 사용변수는 다음과 같음. ① 가격경쟁력: 여행가격, 객실단가, 구매력평가, 조정소비자가격, 부가가치세 ② 관광인원경쟁력: 국제관광인원, 국제관광참여율, 국제관광영향, 국제관광도착객수 ③ 인프라: 도로, 보건시설, 철도, 유료수, 기반시설 ④ 환경: 인구밀도, 이산화탄소배기량, 환경협약 비준여부 ⑤ 기술: 인터넷호스트수, 전화가입자수, 첨단기술 수출액, 모바일폰, 기술력 ⑥ 인적자원: 생애수명, 성인문맹률, 초중고 취학률, 관광직접고용자수 ⑦ 개방성: 비자조건, 관광자유화, 무역자유화, 국제무역관세 ⑧ 사회성: 인적개발, 일간신문, 개인컴퓨터, TV, 총 범죄건수

○ 해외 유학의 급증

- 2006년 유학 연수수지는 그 규모가 전년비 31.5% 증가한 -44.3억달러 적자
·2000년 9억 3,000만 달러와 비교하면 4.7배 증가한 규모임

< 유학 연수수지의 연도별 추이 >



자료 : 통계청

- 해외 유학의 급증은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과 영어 교육 수요 급증에 기인
·소비지출이 400만원을 초과하는 가구의 교육비는 월 1,086,061원에 달하며,
1인당 유학비용은 생활비 포함 월 2천달러 내외로 교육비와 해외 유학비용
이 크게 차이가 나지않고 있음⁵⁾
·이에 따라 초·중고 수준의 조기 유학이 급증하는 현상을 보임

< 가구당 월 평균 교육비 지출 >

(단위 : 원)

| 교육비 지출 | 2003 | 2004 | 2005 | 2006 |
|---------------|---------|-----------|-----------|-----------|
| 전체 가구 | 208,801 | 219,833 | 229,747 | 241,703 |
| 4인 가구 | 316,214 | 345,438 | 367,062 | 401,805 |
| 소득 상위 10% | 396,569 | 426,367 | 477,820 | 483,193 |
| 소득 하위 10% | 63,479 | 67,141 | 70,782 | 68,800 |
| 가구주 연령 40-49 | 349,480 | 368,875 | 397,196 | 428,910 |
| 월소득 600만원 이상 | 435,144 | 463,265 | 522,587 | 500,587 |
| 소비지출 400만원 이상 | 968,459 | 1,043,594 | 1,073,911 | 1,086,061 |

자료 : 통계청

5) 자료: 2005년도 제 26차 KEDI 교육정책포럼, '조기유학 : 국민의식과 실태', 한국교육개발원.

< 연도별 유학생 수 >

(단위 : 명)

|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대학대학원 | 총 유학생수 |
|------|-------|-------|-------|---------|---------|
| 2000 | 705 | 1799 | 1893 | - | - |
| 2001 | 2,107 | 3,171 | 2,666 | 141,989 | 149,933 |
| 2002 | 3,464 | 3,301 | 3,367 | - | - |
| 2003 | 4,052 | 3,674 | 2,772 | 149,405 | 159,903 |
| 2004 | 6,276 | 5,568 | 4,602 | 171,237 | 187,683 |
| 2005 | 8,148 | 6,670 | 5,582 | 175,808 | 192,254 |
| 2006 | - | - | - | - | 190,364 |

자료 : 통계청, 한국교육개발연구원

주 : 해외 이주 및 해외 파견 동반자녀의 유학은 포함되지 않음

- 해외 유학연수는 단순한 소비 지출이 아니라 무형자산 투자 지출로서 의미를 가지므로 수지 적자 자체를 문제시 할 수는 없으나,
 - 내국인 해외유학과 외국인 국내유학 간에 1인당 경비 격차가 극심한 것은 우려할 만한 수준임
 - 특히 최근 들어 내국인의 1인당 해외 유학연수 경비가 급증하면서 내, 외국인간 유학연수 경비가 2005년 38.7배, 2006년 27.2배까지 확대

< 연도별 유학연수수지 및 1인당 경비 추이 >

(단위 : 억달러, 달러, 배)

| 구 분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
| 유학연수수지 | -10.6 | -14.1 | -18.4 | -24.8 | -33.6 | -44.3 |
| 내국인 1인당 연간 해외 유학경비(A) | 7,136 | n.a. | 8,921 | 13,287 | 17,536 | 23,417 |
| 외국인 1인당 연간 국내 유학경비(B) | 927 | n.a. | 1,201 | 944 | 453 | 860 |
| (A / B) | 7.7 | n.a. | 7.4 | 14.1 | 38.7 | 27.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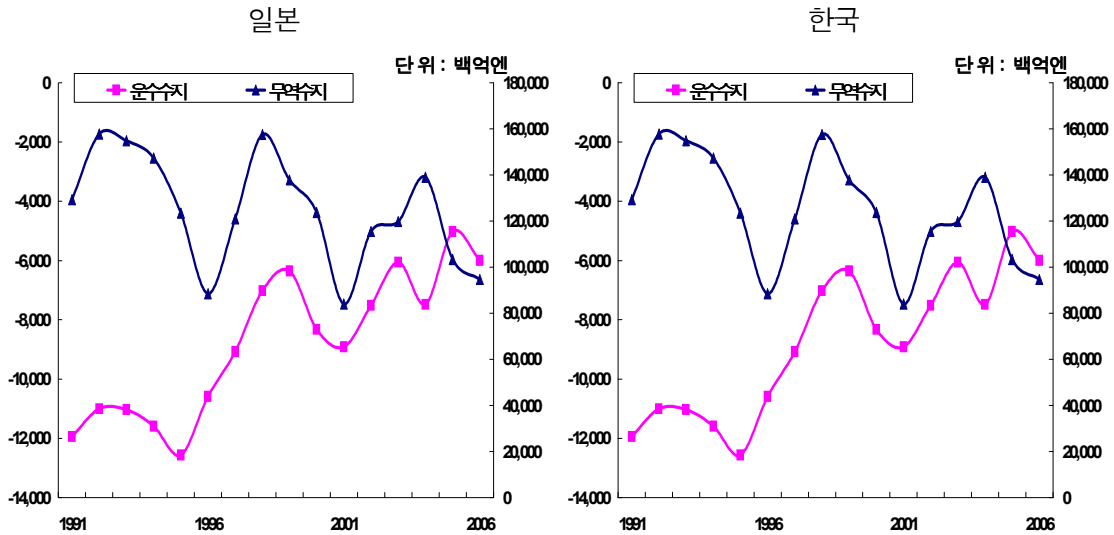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2) 운수수지 흑자 감소 원인

- 운수수지 흑자 감소는 무역수지 감소와 해외여행객 증가에 영향을 받음
 - 수출 물량은 자국 선사를 이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무역수지와 운수수지는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음
 - 한국의 무역수지가 2004년 293.8억달러에서 2006년에는 160.8억달러로 73% 감소할 때 운수수지는 48.7억달러에서 24.6억달러로 49% 감소

- 일본도 무역수지가 2005년 10.3조엔에서 2006년 9.4조엔으로 8.7% 감소할 때 운수수지는 -50억엔에서 -60억엔으로 적자폭이 20% 증가
- 또한, 해외 여행객 증가는 외국 항공사 이용객을 늘려 적자 확대를 초래

<한국과 일본의 무역수지와 운수수지>



자료 : 한국은행, Ministry of Finance in Japan.

3) 기타수지의 적자 증가 원인

- 기타수지의 세부 항목별 구성을 보면 사업서비스와 특허권 등 사용료 항목의 구성이 가장 크고 또한 특징적임
·따라서, 사업서비스 항목과 특허권 등 사용료의 수지 관리가 중요함
- 한국의 기타수지 적자 확대 요인은 사업서비스 항목의 적자 확대에 기인
·한국은 특허권 등 사용료 수지는 약 -25억달러에서 안정적인 추세이며, 사업서비스수지는 적자가 증대되어 2006년 -68억달러 기록
- 반면 일본은 특허권 등 사용료 및 사업서비스 항목의 흑자 전환으로 기타수지 적자가 축소되고 있는 상황임
·특허권 등 사용료는 '91년 -5,234억엔에서 '06년 5,471억엔으로 흑자전환(일본의 기술 무역수지 비율 [기술 수출/기술 수입]은 1996년 1.56배에서 2005년에는 2.88배로 증가⁶⁾)
·사업서비스수지는 '91년 -1조 502억엔에서 '06년 1,036억엔으로 흑자전환

6) 丁厚植, 일본의 경상수지 적자 지속 배경과 시사점, 한국은행, 2007.3

< 일본과 한국의 기타수지 세부 항목의 연도별 추이 >

(단위 : 10억엔, 억달러)

| | 연도 | 합계 | 통신 | 건설 | 보험 | 금융 | 컴퓨터 정보 | 특허권 사용료 | 사업 서비스 | 개인 문화 | 정부 |
|----|----|--------|-----|-----|------|------|-----------|------------|-----------|----------|-----|
| 일본 | 97 | -1,957 | -43 | 290 | -204 | -100 | -251 | -279 | -1,242 | -103 | -25 |
| | 98 | -2,247 | -57 | 291 | -303 | -69 | -288 | -205 | -1,439 | -109 | -68 |
| | 99 | -1,949 | -73 | 163 | -276 | -77 | -194 | -190 | -1,166 | -101 | -35 |
| | 00 | -1,037 | -35 | 198 | -200 | 106 | -162 | -84 | -709 | -125 | -26 |
| | 01 | -1,482 | -43 | 118 | -335 | 129 | -149 | -80 | -921 | -155 | -46 |
| | 02 | -1,442 | -21 | 130 | -448 | 188 | -126 | -73 | -915 | -110 | -67 |
| | 03 | -697 | -15 | 137 | -367 | 151 | -119 | 149 | -587 | -93 | 47 |
| | 04 | -39 | -18 | 223 | -256 | 190 | -124 | 223 | -294 | -109 | 127 |
| | 05 | 626 | -25 | 270 | -117 | 261 | -145 | 329 | 91 | -112 | 74 |
| | 06 | 625 | -35 | 322 | -352 | 365 | -253 | 547 | 104 | -132 | 58 |
| 한국 | 97 | -15 | -2 | 0 | -2 | 1 | -1 | -22 | 6 | -1 | 4 |
| | 98 | -35 | -5 | 0 | -1 | 0 | -1 | -21 | -11 | -1 | 3 |
| | 99 | -40 | -3 | 0 | 2 | 3 | -1 | -22 | -22 | -1 | 4 |
| | 00 | -50 | -2 | 0 | -1 | 5 | -1 | -25 | -31 | 0 | 4 |
| | 01 | -46 | -3 | 1 | -3 | 4 | -1 | -21 | -28 | -1 | 5 |
| | 02 | -54 | -3 | 0 | -5 | 6 | -1 | -22 | -36 | -1 | 6 |
| | 03 | -60 | -4 | 0 | -4 | 6 | -1 | -23 | -44 | -2 | 8 |
| | 04 | -64 | -2 | 1 | -3 | 10 | -1 | -26 | -50 | -2 | 8 |
| | 05 | -75 | -3 | 1 | -6 | 14 | -1 | -27 | -61 | -2 | 7 |
| | 06 | -70 | -3 | 1 | -5 | 19 | -5 | -25 | -68 | -3 | 6 |

자료 : 한국은행, Ministry of Finance in Japan.

- 한국도 특허권 및 사업서비스 항목의 적자 축소 및 흑자 전환 노력이 요망됨

- 한국의 기술 무역수지 비율은 아직 0.36배에 불과하나, 기술 발달로 인한 특허권의 빠른 누적으로 적자 축소가 불가능한 것만은 아님
- 다만, 사업서비스 부문은 아직 국내 기업들의 규모의 영세성, 기술력 취약 등으로 적자 축소 가능성을 점치기 어려움

< 한국과 일본의 특허 출원 건수 >

(단위 : 건)

| | 1980 | 1985 | 1990 | 1995 | 2000 | 2005 | 평균 출원 건수 증가율 | | |
|----|--------|--------|--------|---------|---------|---------|--------------|-------|-------|
| | | | | | | | 80년대 | 90년대 | 00년대 |
| 한국 | 1,632 | 2,268 | 7,762 | 12,512 | 34,956 | 73,512 | 13.9% | 36.9% | 6.7% |
| 일본 | 46,106 | 50,100 | 59,401 | 109,100 | 125,880 | 122,944 | 4.3% | 19.9% | -3.5% |

자료 :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III. 시사점 및 보완 과제

1. 시사점

- 첫째, 서비스수지의 추세적 악화를 차단하여 경상수지 적자의 구조화를 방지해야 함
 - 우리나라의 서비스수지는 일반여행 및 유학 급증, 전문적인 사업서비스 수요 확대 등으로 적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
 - 이에 따라 서비스수지 적자는 이미 상품수지 흑자를 상쇄하고 있으며, 자칫 경상수지 적자구조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음
- 둘째, 유무형 지적자산의 수입대체 및 수출 확대 노력이 필요함
 - 일본은 지적자산 수출로 서비스수지 적자를 대폭 줄이고 있으나, 한국은 아직도 기술 등 무형자산 수입국 지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한국도 일본처럼 강력한 제조업 기반으로부터 특허권, IT, 디자인역량 등 무형자산의 축적과 CT, BT 등 지식컨텐츠 분야의 성장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무형자산 수출국으로의 전환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님

2. 서비스수지 개선 과제

- 첫째, 고급 관광자원의 확충
 - 한국 관광산업은 이미 가격 측면에서는 경쟁을 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고급 관광자원을 확충하여 관광객 수요를 유지해야 할 것임
 - 관광과 타분야의 융합(예: 문화, IT 등), 기존 상품의 고부가가치화 및 신상품 개발, 컨벤션산업 등 연계사업 활성화 등 상품 고급화, 다양화가 필요함
- 둘째, 해외 유학연수 수요를 대체할 국내 교육서비스 다양화 및 고급화
 - 외국 우수 교육기관에 대한 국내시장 개방, 공공 영어교육 확대 등 해외 유학연수 수요를 국내에서 최대한 흡수할 수 있도록 국내 교육서비스를 다양화하고 고급화 해나가야 할 것임

- 셋째, 유무형 지적자산 확충의 가속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확대
 - 기존 산업의 신기술 분야, IT, BT, CT 등 첨단 지식산업 분야 등에서 지적자산 확충을 가속화하여 무형자산 수출국으로 변모하기 위해서는
 - 민관공동연구나 산학협력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지식기반산업에 대한 금융 및 세제 지원 강화 등 정부 차원의 제도적 지원을 확대해나가야 할 것임

- 넷째, 사업서비스업 대형화 유도 및 경쟁력 강화 지원
 - 사업서비스업 대형화를 위한 한시적 세제 지원, 금융기관 담보대출 관행 개선을 통한 자금공급 확대 등 정부 차원의 육성 대책 수립 및 시행

- 다섯째, 지식, 사업서비스 산업의 고급 전문인력 확충
 - 전문대학원 활성화, 산학협력 인재개발 지원, 해외 인재과건 확대, 외국 고급인력 수입 등을 통한 고급 전문인력 인재 풀 확충 및 관리

이 원 형 연구위원(3669-4031, lwh@hri.co.kr)

주간 경제 동향

□ 실물 동향 : 실질적 고용 시장 개선 미흡

○ 3월 실업률은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하여 취업자가 1.2% 증가하고 실업자가 8.9% 감소함에 따라, 작년 3월의 3.9%보다 0.4%p 하락한 3.5%를 기록

- 산업별 취업자를 살펴보면 건설업, 사업·개인·공공 서비스업 부문 등의 취업자 수가 증가한 반면, 농업, 제조업, 도소매·음식숙박업 취업자 수는 감소세를 나타냄
- 특히 제조업 부문의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1.4% 감소하여, 2004년 12월 이후 2년 3개월 동안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음
- 한편 18시간미만 취업자 중에서 「경제적 이유로 18시간미만을 일하였으나 추가 취업을 희망하는 자」가 16만 명으로, 전년동월의 14만 5,000명(전월의 15만 8,000명)에 보다 증가하여 ‘좋은 일자리 부족’ 문제가 지속중인 것으로 나타남

< 주요 실물 경제 지표 >

(전년동기대비, %)

| | | 2005 | 2006 | | | | 2007 | | | | |
|-------|------------|-----------|-------|----------|----------|----------|----------|-------|-------|-------|--------------|
| | | | 연간 | 1/4 | 2/4 | 3/4 | 4/4 | 1월 | 2월 | 3월 | |
| 경기 | 경제성장률 | 4.2 | 5.0 | 6.3(1.0) | 5.1(0.8) | 4.8(1.2) | 4.0(0.9) | - | - | - | |
| | 수요 | 소비재판매 | 4.1 | 4.7 | 5.3 | 6.1 | 2.9 | 4.5 | 2.7 | 12.4 | - |
| | | 설비투자추계 | 6.3 | 7.4 | 6.2 | 6.7 | 11.8 | 5.1 | 15.4 | 12.4 | - |
| | | 건설수주 | 7.3 | 9.0 | -8.5 | -14.7 | 37.1 | 27.1 | 9.7 | 40.1 | - |
| | | 수출 | 12.0 | 14.4 | 10.6 | 16.9 | 16.3 | 13.8 | 20.8 | 10.5 | 14.0 |
| | 공급 | 산업생산 | 6.3 | 10.1 | 12.8 | 11.5 | 11.3 | 5.2 | 7.5 | -0.4 | - |
| | | 취업자수 (만명) | 2,286 | 2,315 | 2,258 | 2,341 | 2,331 | 2,330 | 2,273 | 2,267 | 2,312 |
| | | 실업률 (%) | 3.7 | 3.5 | 3.9 | 3.4 | 3.3 | 3.2 | 3.6 | 3.7 | 3.5 |
| 수입 | | 16.4 | 18.4 | 19.7 | 20.4 | 21.1 | 13.0 | 19.8 | 7.3 | 12.1 | |
| 대외 거래 | 경상수지 (억\$) | 166 | 61 | -11 | 7 | 4 | 61 | -4 | 5 | - | |
| | 무역수지 (억\$) | 232 | 161 | 13 | 48 | 25 | 75 | 4 | 10 | 15 | |
| 물가 | 소비자물가 | 2.8 | 2.2 | 2.1 | 2.2 | 2.5 | 2.1 | 1.7 | 2.2 | 2.2 | |
| | 생활물가 | 4.1 | 3.1 | 3.1 | 3.1 | 3.5 | 2.6 | 1.9 | 2.4 | 2.5 | |

주 : 경제성장률의 ()안은 계절조정 전기비 기준, 진한 글자체는 최근 발표된 경제 지표임.

□ 금융 동향 : 주가 사상 최고치 재경신

○ (해외 금융 시장) 주요국 정책금리 동결 속 달러화 약보합

- **금리**: 3월 고용지표 부진에도 불구하고 연방준비은행 이사회의 인플레이션 압력 지속 우려 등으로 약보합 시현 (국채 10년물 : 4.75 → 4.74%)
- **환율**: 유로화는 ECB의 금리 동결에도 불구하고 향후 금리 인상 가능성과 미국의 주간 실업자 수당 건수의 예상치 상회 등으로 달러화에 대해 소폭 강세를 보였고, 엔화는 일본 은행의 금리 동결로 미일 금리차가 지속되는 가운데 강보합 시현 (\$/€ : 1.3379→1.3482 ¥/\$: 119.26→119.16)

○ (국내 금융 시장) 원화 환율 920원대로 하락

- **주가**: 외국인 주식투자자의 순매수 지속 등으로 증시의 호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일부 저평가 주에 대한 매수세도 확대되면서 사상 최고치를 다시 경신 (1,484.2 → 1,520.8)
- **금리**: 국고채 입찰 부진 및 외국인 투자자의 국채선물 순매도 등의 영향으로 전주대비 소폭 상승 (국고채 3년 수익률, 4.84→4.97%)
- **환율**: 수출 기업들의 달러화 환전 수요 및 외국인 주식투자 순매수세 확대에 따른 자금 유입이 지속되면서 원화 환율은 하락 (931.9→929.2)

○ (전망) 부동산 시장의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당분간 주식시장의 호조 전망

< 주요 금융 지표 >

| | | 2005 | 2006 | | | | 2007 | | |
|----|------------|---------|---------|---------|---------|---------|---------|---------|---------------------|
| | | 4/4 | 1/4 | 2/4 | 3/4 | 4/4 | 1/4 | 4.6. | 4.13. ¹⁾ |
| 국내 | 거래소 주가 | 1,379.4 | 1,359.6 | 1,295.2 | 1,371.4 | 1,434.5 | 1,452.5 | 1,484.2 | 1,520.8 |
| | 국고채3년(%) | 5.08 | 4.93 | 4.92 | 4.57 | 4.92 | 4.76 | 4.84 | 4.97 |
| | 원/달러 | 1,011.6 | 971.6 | 948.9 | 946.2 | 929.8 | 940.9 | 931.9 | 929.2 |
| 해외 | DOW | 10,718 | 11,109 | 11,150 | 11,679 | 12,463 | 12,354 | 12,560 | 12,553 |
| | Nikkei | 16,111 | 17,060 | 15,505 | 16,128 | 17,226 | 17,288 | 17,484 | 17,540 |
| | 미국채10년(%) | 4.39 | 4.85 | 5.14 | 4.63 | 4.70 | 4.57 | 4.75 | 4.74 |
| | 일국채10년(%) | 1.48 | 1.78 | 1.93 | 1.68 | 1.69 | 1.60 | 1.68 | 1.68 |
| | 달러/유로 | 1.1849 | 1.2118 | 1.2790 | 1.2674 | 1.3199 | 1.3354 | 1.3379 | 1.3482 |
| | 엔/달러 | 117.75 | 117.78 | 114.42 | 118.18 | 119.07 | 117.83 | 119.26 | 119.16 |
| | 두바이(\$/배럴) | 53.19 | 59.16 | 67.17 | 57.33 | 56.71 | 63.12 | 64.51 | 64.56 |

주 : 1) 해외지표는 전일(4.12.) 기준